

정원 늘었는데 채용은 뚝...빛가람혁신도시 '고용 한파'

알리오, 12개 공공기관 분석...전년 대비 정규직 채용 19%↓

한전·한전KPS, 채용 '반토막'...일자리 감소에 인구유출 우려

최근 3년간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2개 이전 공공기관의 정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정규직 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가 정책 등을 수행하는 전력3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이 대폭 줄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건수 대부분이 정년 채용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기업·공공기관 12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전 기관들의 정규직 채용 건 수는 3분기 기준 788명으로 전년(1418명) 대비 44.4% 감소했다. 이는 올 4분기 중 정규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72명 예정)와 한국농어촌공사(288명 예정)를 포함해도 지난해 채용 규

모보다 19% 적은 수준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채용이 급감한 것은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한전은 전체 채용 건 수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21~2023년 누적된 막대한 적자와 부채 해소 등을 위해 채용 규모도 대폭 줄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한전의 정규직 채용 규모를 보면 지난 2020년 1547명에 달했지만, 이자 부담 등 재무위기에 처한 2021년 1047명으로 전년 대비 500명 줄었다. 이후 2022년 482명, 2023년 266명 등 지속 정규직 채용이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회사 사정이 개선되자 정규직 채용을 600명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정원 수에는 한참 못미치는 데다 올해

427명을 채용하며 또다시 채용 규모를 줄이는 모양새다.

더불어 한전KPS 역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어 가장 채용 규모가 큰 공기업이지만 올해 정규직 채용 건 수는 164명으로 전년(368명)보다 55.4% 줄었다.

또 농림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대부분의 빛가람혁신도시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올 4분기 채용까지 더해 정원 수를 거의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전과 한전KPS는 각각 1000여명, 400여명 이상 정원 미달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기준 기관별 정년 채용 비중은 한전(96%), 한전KDN(95.1%), 한국인터넷진흥원(100%) 등으로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에서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이 정년 채용에 쏠려있는 만큼, 전반적인 채용 규모 축소는 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정년 중심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글로벌 서포터즈, 농촌 매력 전 세계에 알렸다

농어촌공사 서포터즈 해단식...SNS 조회수 330만 돌파 등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29일 ‘2025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팝죽)’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지난 5월 14개국 20명의 인플루언서로 출범한 뒤, 전국 농촌 여행지 9곳을 방문해 한국 농촌의 매력을 알렸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을 완수한 19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우수 성과자 상위 4명에게는 최우수상(1명)과 우수상(3명)을 각각 수여했다.

서포터즈는 활동기간 동안 공사가 준비한 9회의 농촌 여행과 더불어 ‘의성 농촌크리에이티브’ 등 관계기관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농촌 여행 후기 게시물은 총 2148건에 달하며, 33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경험한 한국 농촌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 가평 ‘갯향기 푸른마을’에서 가진 엠티(MT) 문화 체험은 76만회, 강원 양양 ‘38 평화마을’의 여름 서핑 체험도 75만회 등 기록을 세웠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기념해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5만원 드리면’ 시리즈는 82만 6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기도 했다.

김영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다양한 국적의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콘텐츠가 한국 농촌의 숨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창립 58주년’ aT,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 다짐

기념식서 혁신방향 정립 등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aT 창립 제5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포상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지원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aT와 관련업체의 노력 및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식품산업의 국내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 “농수축산식품 수출은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 올해 aT의 노력 및 성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7대 혁신방향 정립 및 실행,



홍문표(왼쪽에서 7번째) aT 사장을 비롯한 ‘aT 창립 제58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신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등 유통구조혁신 추진, 중동 권역 시장 한우 최초 수출, 생산·현장 중심 조직개편,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조직 역량강화 및 상용화 추진 등이 제시됐다.

홍문표 aT 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 모든 임직원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식품영토 확장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AI·VR 등 융합 디지털 전환 기여

한전KPS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경영혁신 부문에서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경영혁신대상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영혁신 및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디지털·빅데이터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전KPS는 발전소라는 국가 보안시설의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외부 솔루션이 아닌 자체 기술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피지컬 AI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 한전KPS는 폐쇄망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생성형 AI인 ‘KARE(KPS AI Robot Engineer)’를 독자 개발해 정비 기술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

KARE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정비지원 플랫폼

에 탑재해 고장 예측 진단, VR 기반 정비 훈련, 태블릿 기반 작업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해 정비 현장의 효율성·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한전KPS는 KARE를 시작으로 보안과 혁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공공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지컬 AI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비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스마트그리드 사업 연장 운영

한전·LG유플러스·씨앤유글로벌과 협약

한전KDN은 “지난달 28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 LG유플러스, 씨앤유글로벌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연장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정부의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제공된 전력데이터 기반 서비스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전 등 기존 4개 사업 참여사가 컨소시엄을 재구성해 아파트 지능형전력량계(AMI) 운영 방식 표준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e신사업 확대 등을 목표로 연장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자체 및 참여 기업들이 협력해 구축한 전국 12개 지역의 14만 4000호 아파

트 세대별 AMI 인프라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고도화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들은 파워플래너 고도화, 수요반응(DR), 가상발전소(VPP) 기반 서비스, 에너지 데이터 기반 신사업 실증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그동안 데이터 중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번 사업 연장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전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역할이 한층 확대됐다”며 “전력데이터 품질 고도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에너지 신서비스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